

이력서



성명 : 황재연 (Hwang, Jae-Yeon)

생년월일 : 1997년 6월 7일생 (양)

휴대전화 : 010-5192-9815

전자메일 : jy7558815@naver.com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학력사항]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재학	2019.03 ~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졸업	2013.03 ~ 2016.02

[주요 활동 및 사회경험]

SMC척3000 (사원)	2015.09 ~ 2016.04
- 업무내용 : 제품 브로셔 및 홍보자료 제작, 웹사이트 관리 자사쇼핑몰 구축프로젝트(시안제작 및 조율)	

[자격증 및 컴퓨터 활용 능력]

○ 운전면허 1종보통 [경기지방경찰청]	2015.08
○ 웹디자인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5.07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12
○ GTQ 1급 [한국생산성본부]	2014.10
○ 워드프로세서 [대한상공회의소]	2013.12
○ 사용 프로그램 및 도구	
- Adobe Photoshop, Illustrator, Premiere, AfterEffect, Unity HTML/CSS, JavaScript, Jaquery C#	

[수상내역]

○ 디지털미디어 디자인과 졸업전시 학과 우수작	
- 작품명 : POOM (품)	

[교육사항]

○ 계원예술대학교 진로설정 특강프로그램	2019.12 (총 2회)
- 교육내용 : 자기소개서 특강, 진로로드맵 설계특강	

자 기 소 개 서

- 디자인, 우연한 만남 열정적인 사랑

웹디자인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것은 고등학교 때입니다. 컴퓨터그래픽스 수업을 들으며 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본인의 생각을 시각화해내는 그래픽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하며 그래픽 디자인에 흥미가 생겨 GTQ 1급,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웹디자인 기능사 등 그래픽 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회사에 취직하여 디자인 관련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러던 중 자사 쇼핑몰 'SMC척 물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웹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협업하며 웹디자인 분야에 흥미를 느꼈고, 이를 계기로 웹디자인 전문가가 되기로 결정, 군대에서 HTML/CSS를 공부하였고, 좀 더 깊게 이해하고자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본인을 브랜딩하고, 시장조사 방법을 배우고,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웹디자인으로서의 필요한 능력을 키웠습니다.

- 코딩과의 만남

코딩을 처음 만난 건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웹디자인 분야 중 웹 퍼블리싱에 관심이 많아 학원에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HTML/CSS, jQuery 등 알 수 없는 용어들로 헤매기도 하고, 후회도 했지만, 교재를 보고, 강사님의 강의를 필기 및 응용하여 코드를 본인의 웹 시안에 맞춰 적용한 결과 조금 부족하지만 본인만의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웹퍼블리셔를 꿈꾸게 되었고, 이 때의 기억을 통해 **군 생활 중에도 웹 퍼블리싱에 대한 열의를 지속할 수 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 계원예술대학교에 입학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1학년을 다니며 HTML/CSS, jQuery, Unity, C# 등 어려운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세부 전공으로 프로그래밍을 고를 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현재 수업을 들으며 **매시간 새롭게 배우는 지식을 통해 뿌듯함과 옳은 선택을 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 시련과 극복

좋아하던 프로그래밍이었지만 시련을 벗어날 순 없었습니다.

시련은 세부 정공으로 선택한 C#과 JavaScript를 이용한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 발생했습니다. 'BPM 95"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티스트의 앨범 소개 페이지를 제작하였는데 레이아웃과 인터랙션이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코드를 쓰고 지우는 과정을 반복하고, CSS 파일과 JAVASCRIPT 파일을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고 수정하며 약 5시간을 투자하였지만 끝내 해결하지 못하여 눈물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선택한 것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완성은 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전 수업 때의 **실습한 파일과 프로젝트 작업 시 참고했던 웹사이트들의**

구조를 다시 뜯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커뮤니티의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코드를 본인의 작업물에 적용**도 해보고 응용하기 위해 수십 번의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그래밍 분야의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작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시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 끝나지 않은 성장

지난 시련을 계기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커뮤니티를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곳을 살펴보며 본인에게 맞게 응용하여 이전 작업의 시간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게 되었고, 주어진 작업을 끝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여 본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과정에서 좌절하고 실패를 겪을 수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력을 갖춘 인재가 되겠습니다.